

‘층간소음’만큼 시끄러운 청년들의 ‘속마음’



시작프로덕션 제공



‘인생은 여행이다’를 외치며 여행에 서툰, 여행이 두려운 이들에게 이곳 저곳을 알려주는 여행자가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맛집을 소개하고, 로마의 기념품을 안내하던 노트북 속 세상을 벗어나자 고장난 가전제품을 매입한다는 고물상의 확성기 소리와 주취자의 술주정이 들려온다.

그의 현실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는 개방성,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극사실주의’의 1995년에 지어진 낡은 빌라 덕용맨션이다.

방음을 기대할 수 없는 이곳에서 꾸역꾸역 여행기를 써내는 여행자가 ‘오영원’은 안 가보고, 안 먹어보고 그럴듯하게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론 여행 한 번 간 적이 없다.

지난 1일 서울 대학로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에서 개막한 뮤지컬 ‘청춘소음’은 한국문화

창작산실 선정 뮤지컬 ‘청춘소음’

가짜 여행작가·취준생들 이야기 담아 취업·주거난 등 청년들에 위로 전해 내달 26일까지,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예술위원회 2022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작품이다.

덕용맨션에는 가 본 적 없는 여행지를 홍보하는 여행작가 오영원을 비롯해 각종 아르바이트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취업준비생 ‘한아름’, 현실적인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는 공장 노동자 ‘김종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이 세 사람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층간소음’이다. 영원과 아름은 1층과 2층에 각각 거주하며 서로 정반대의 생활 방식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소리에 고통받는다.

영원은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적은 쪽지를 아름의 집에 붙이고, 아름은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리면 해코지를 당할까 겁이나 험한 과

거를 가진 남자인척 한다. 하지만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나고, 둘은 티격태격 비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낸다.

작품 속 층간소음만큼이나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속마음도 시끌시끌하다. 가짜 여행기를 쓰며 회의감을 느끼고, 진짜 여행을 다니는 진짜 작가가 꿈꾸는 영원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도 다달이 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교통비를 걱정하며 자격증 시험을 핑계로 친구들과 놀라갈 수 없는 아름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진하 연출은 “작품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다”며 “여행의 조각 같은 무대 위에서 상황마다 웃음을 유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청춘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는지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는 여행작가 오영원 역에는 김이담, 정육진, 이휘중, 김민성이 출연하며, ‘알바만렙 취준생’ 한아름 역은 랑연, 김청아, 임소윤이 맡았다.

공연은 내달 26일까지, 정경아 기자

‘2023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단체 공모

경기아트센터, 내달 1일부터 접수 피크닉 등 참여할 10개 단체 모집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출연할 10개 단체를 공모한다.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일상 회복’을 주제로 경기아트센터는 도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경기도 구석구석 지역 공동체로 찾아가 ‘일상 속 문화 회복’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소원해진 지역 사회 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연 프로그램 기획에 나선다. 도심 지역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도서관, 공원 등에서

의 중·대규모 공연을, 농촌 지역에는 노인정, 학교, 복지기관 등에서 소규모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발된 단체들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문화나눔 90회 내외 ▲문화쉼터 20회 내외 ▲문화피크닉 15회 내외 등 연간 사업에 함께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2인 이상의 예술가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경기도 소재 단체(대표자 주소지 기준)여야 한다.

또한, 종교 활동 목적으로 참여하는 공연단체나 정기간연이나 단체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공연단체는 참여가 제한된다.

공연물은 모든 장르에 대해 제한이 없으며, 경기도내 다양한 실내의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60분 분량이면 된다. 공연 활동 기간은 선발 시부터 올해 12월까지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경아 기자



지난 17일 열린 수원시립합창단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 ‘소풍 가는 날’.

수원시립합창단 제공

수원시립합창단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 ‘소풍 가는 날’

수원시립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 ‘2023 수원시립합창단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 - 소풍 가는 날’을 개최한다.

그동안 수원시립합창단은 매년 새해가 되면 수원 관내의 시민들을 찾아가 음악선물을 전달해왔다. 이번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됐다.

부제 ‘소풍 가는 날’은 외부 활동이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한 훈훈한 봄날의 소풍같은 음악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17일 중앙양로원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내달 3일 팔달노인복지관, 9일 수원시장에

인종함복지관, 21일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해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한 합창음악은 물론 한국 가곡과 신명나는 민요에서부터 재즈, 뮤지컬 넘버, 애니메이션 OST, 성가, 가요,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풍성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한편, 수원시립합창단은 매년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가 적은 시민들을 위한 음악 선물을 선사하고 있다. 목적과 의미에 적합하다면 수원시민 누구나 수원시립합창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경아 기자

희망 2023 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행복한 우리 경기

2022. 12. 1(목) ~ 2023. 1.31(화)

기부상담
031-220-7900

ARS 기부 (전당 3,000원)
060-700-1212

기부참여 (QR코드)

경기사랑의열매는 빈곤·소외·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 세워진 법정 모금·지원기관입니다. <https://gyeonggi.chest.or.kr>

사랑의열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